

지난 4월 1일 한국오리협회 제24차 정기총회에서 제11대 부회장으로 마낙중, 이우진, 마광하, 윤영호 이상 4명의 분과위원장이 선임되었다. 각 분과별로 협의를 거쳐 추천에 의해 선출된 분과위원장이 부회장직을 겸하게 되며, 마낙중 부회분과위원장, 윤영호 토종오리분과위원장은 지난 임기에 이어 재선임되었고, 전 이우진 감사(주원산오리 대표)가 계열유통분과위원장으로, 마광하 광주전남도지회장이 사육분과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새로 선임된 이우진, 마광하 부회장의 선출소감과 함께 앞으로 오리산업 발전을 위해 각 분과별 어떤 정책을 펼칠 계획인지 생각을 들어보았다.

* 편집자주



이우진

한국오리협회 부회장
(계열유통분과위원장)

Q1. 계열유통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

2015년은 한국오리협회가 회기년 24기 성년이 된 중요한 해이며, 오리협회 처음으로 외부 인사를 영입, 협회장으로 추대하여 산업의 기반을 견고히 하고 대정부 협회 의견 반영 등 산재된 일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 계열유통 분과위원장을 맡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협회장을 보좌하며 오리산업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Q2. 오리산업의 현주소와 해결해야 할 문제

국내 오리산업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눈부시게 성장하였습니다. 당시 웰빙 트렌드를 타고 건강식품과 좋은 먹거리로서 오리가 괄목하게 성장하였습니다. 2011년은 농식품부 7대 경제비중까지 오르다가 2012년부터 유럽 경기의 디볼트, 국내 중공업, 건설업, 조선업의 경기침체와 과잉생산 되었던 오리 냉동재고 과다로 업계는 적자에 허덕이고 냉동육 원료육으로 만든 훈제시장이 소비둔화 경기와 맞물려 침체되면서 오리육 이미지가 손상으로 소비자 이탈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또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건의 국민적 슬픈 분위기의 지속, 공무원

연금 개정 등 정치적 이슈에 50~60대의 소비층이 주머니를 닫게 되는 위기까지 내몰린 상태이고,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끝나지 않은 고병원성 AI상황이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Q3. 국내 오리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 1) AI종식을 위해서 사육농가들의 방역시설 개선과 의식 고취가 선결되고 정부의 AI대응 SOP규정이 현실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 2) 연간 오리소비 수량에 맞는 적정 종오리 및 육용오리 사육으로 안정된 수급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 3) 오리육의 새 상품으로 소비자의 건강과 소비자 주머니 사정에 맞는 저단량 포장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소비자 접점력을 높여야 합니다.
- 4) 소비홍보 연구사업으로 효과 있는 소비홍보 채널 확보와 지속적 소비자의 근접 노출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 5) 사육, 부화, 계열업체, 유통 등 전 협회원이 단결된 모습으로 자조금 및 협회비 납부 준수를 통하여 협회 활동력 강화를 탄실하게 해야 합니다.
- 6) 오리고기를 선호하는 아시아권의 시장 확대를 통해 해외 수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Q4. 계열유통분과 위원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방향

- 1) 시장상황에 맞는 탄력적 수급체계가 필요합니다.
- 2) 신선육, 토치육, 발골육, 가공육(훈제품)의 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통질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 3) 제품의 판매단위를 '마리수수' 단위에서 '중량(무게)' 단위로 변경해야 합니다.
- 4) 소비자 트렌드에 맞게 오리 업체마다 오리육의 신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 5) 분과위원들과의 정보공유, 공감대 형성 등 협회업무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마광하

한국오리협회 부회장
(사육분과위원장)

Q1. 사육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

한국오리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대 한국오리협회 사육분과위원장으로 선임된 마광하입니다. 먼저, 다른 지회의 기라성 같은 사육분과 회원 여러분들이 계신 가운데 미력하나마 오리사육분과 임무를 맡게 되어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농장을 운영하는 농가입장에서 회원 여러분의 온갖 정당한 민원들을 원만이 해결하고 처리할 수 있을지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그 길이 멀고 힘들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보면 오리산업이 다시 빛을 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사육농가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하더라도 반드시 한계점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 여러분의 힘이 함께 모아질 때 큰 뜻을 펼칠 수 있으리라 여겨 집니다.

Q2. 오리산업의 현주소와 해결해야 할 문제

앞으로 사육분과위원장으로 가장 치중하고 싶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협회 조직체계 소통완성

그간의 오리협회는 회원들의 무관심속에서 독단적으로 움직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원인 중 한 가지는 서로 간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새로 출발한 김병은 회장님께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간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일처리를 하시겠다는 기대가 정말로 큼니다. 저 또한 사육분과위원장으로서는 중앙회장님과 직원들 사이에서 업무처리를 순탄하게 할 수 있도록 먼저 소통을 외치면서 회장님의 뜻에 함께 하겠습니다.

2. AI개선 중장기적 대안 마련

정부 AI개선대책관련 뿐 아니라 현장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농장 선행요건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이 즐겨 찾고 사랑받는 오리산업이 되도록 중장기적인 플랜에 동승하겠습니다.

AI 개선대책 관련해서 지금까지 4차례 지나쳤던 AI정부 대처안은 살처분과 이동제한으로 끝을 내고 말았는데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대안을 세울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양성농가 바닥비닐 깔기, 각동에 전실 설치, 여러 가지 점검항목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행정지침으로 계획·수립되어서 난립하고 있고 농가는 혼돈 속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활용이 될 수 없는 행정 지침은 실패한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전제 하에 지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사육분과에서는 회원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최선을 다하여 중장기적인 개선대책에 가장 역점을 두겠습니다.

3. 적극적인 자조금과 협회비 거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자조금 사업으로 오리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선대책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상황은 장기적인 이동제한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바로잡는 후속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계안정자금과 소득안정자금의 현실화)

2014년도에 오리생산이 65% 감소했고 올해도 예전 최고 생산량의 절반 정도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리산업은 어떤 형태로든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리 생산량 대비 농가사육면적이 넘쳐나고 있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위기상황일수록 서로 불신하고 '내 농장만 잘 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은 이 산업을 궁지로 몰아가는 불합리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뭉쳐야 산다'는 생각으로 자조금과 협회비 납부에 힘을 실어서 희망을 걸어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여러분들의 질책과 사랑 속에서 무사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